

◎ The Provement and Present Condition of Reading Movement in Korea.

## 讀書運動 그 現況과 診斷

—外國의 讀書現狀과 比較한 우리나라 讀書現像의 改善方案—

梁 泰 鎮

(國立中央圖書館 司書官)

### 1. 讀書運動의 起源

讀書運動이 凡世界的으로 번지게된것은 1919年 美國에서 Boyscout의 館長인 Franklin K. Mesh氏가 少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 주고 교양을 높여 줄 目的으로 一定期間을 設定해 놓은 것이 그始初라고 한다.

그후 世界 여러나라에서 각기 讀書週間이라는 행사 시간을 두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금년들어 19回의 讀書週間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19回가 되는 짧은 時間의 歷史를 지니면서도 讀書運動의 그 實效는 別로 이렇다할 成果를 얻지 못하고 있는것이 우리의 實情인것 같다. 아무리 讀書運動의 成果가 不可視의 인 것이라 할지라도 讀書週間과 같은 行事가 讀者들에게 別다른 관심을 불러 이르게 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게 됨은 行事自體도 문제이려니와 行事가 좀더 國民들과 밀착될 수 있는 方向으로 改善策되어야 할것이며, 따라서 이에 必要한 Data 調査에 힘써야 할 것 같다. 讀書運動이 世界的으로 번져 나가면서 獨逸과 같은 나라에서는 讀者學(Leserkunde)이라는 獨者的인 研究分野가 誕生할 程度라고 하니 우리도 좀더 차체에 진지하게 讀書運動을 위한 調査, 研究를 할 時期가 到來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運動의 밑받침이 될 多樣한 데이터가 于先的으로 研究 調査되도록 致密하고도 多角的이며 長期的인 對策이 關係당국자들 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最小限 이에 對한 최우선적인 基礎 調査로서 讀書人口를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讀書對象者로서는 現實的으로 實際 讀書를 하고 있는 Actual Readers는 勿論 潛在的인 讀書(Potential Readers)도 包含시켜야 한다. 讀書人口가 적다고 하는 것은 主로 이 潛在的인 讀者가 問題視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潛在的인 讀者는 우리 나라의 경우 다

른 나라에 比해 보다 심각한 問題를 內包하고 있는듯하다.

가장 讀書를 많이 한다고 하는 學生들도 교과과정에 의거한 工夫에 集中하다가 일단 學校生活을 떠나게 되면 곧 生活戰線이라는 무거운 韃에 짓눌려서 인지 또는, 교과과정 위주의 教育方式에 열증을 느껴서인지 校門을 나선 후로는 職業上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敎養을 위한, 또는 自己전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讀書에는 怠慢하여지고 책과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에대한 病弊의 診斷과 處方은 무엇보다도 교과과정속에서 讀書를 하도록 刺戟 시키고 유인하도록 하는 時間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나아가서 讀書가 衣食住와 같은 人間生活의 必須條件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 例로서 호주에서는 國民學校에서는 물론이요 高等學校에서까지 1년에 義務的으로 指定된 古典을 20권까지 읽도록 되어 있고, 기타 歐美諸國의 教育制度和 같이 책을 읽지 않고는 주어질 科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없는 教育方法이 모두 우리의 現行 教育方式과는 다르다고 보겠다.

특히 讀書가 單純한 취미가 아니라 生涯教育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讀書에 대한 관심을 源泉的으로 家庭에서 부터 키워 나가야 할 것으로 안다.

即 讀書가 재미있고 즐거움을 주며 우리의 生活에 有益하다는 것을 어러서 부터 家族들과 함께 習慣化되도록 意識的인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家庭에서 부터 讀書에 대한 관심은 점차 學校生活에서도 연장되어 평생공히 讀書能力을 鼓吹시켜나가는 데 밑받침이 되리라 본다.

### 2. 教育熱과 讀書熱

教育에 對한 熱意와 讀書熱은 반드시 一致하지 않은 듯하다. 대체로 우리 나라의 경우 世界 어떤 나라 못지 않게 높은 教育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熱意는 敎

育을 받아야 할 被教育者 自身보다도 父母들의 熱誠에 기인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父母들 스스로가 당하는 원만한 犠牲쯤은 달게 감수하며 子女들의 教育에 온갖 정력을 다 쏟고 있다. 그 결과 教育人口는 解放以後 급속히 증가하여 820萬이라는 숫자로 전체 인구의 25%에 達하며 문맹율도 減少하여 11.6%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1970年度 人口센서스 보고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教育人口의 증가는 앞으로 우리의 國力을 培養하는데 原動力이 될 것이며 이를 根據로 하여 무한한 國家發展의 潛在力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潛在力을 發達하는데 先導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讀書인 것이다. 讀書가 우리의 生活에 緊要하다함은 再言을 要하지 않으나 실제 연년히 증가하는 教育人口와는 달리 讀書人口나 讀書量은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이제 이렇듯 증가하여 나가는 讀書對象者들에게 讀書를 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讀書의 重要性을 各種行事와 P.R을 통하여 아무리 철저히 認識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讀書行爲에 이르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 3. 讀書環境

讀書環境이라 함은 讀書를 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야 할 諸要件을 말하는 것으로 이 중 가장 比重이 큰 것이 讀書의 場이라 하겠다. 이 讀書의 場에 基盤이 되고 있는 家庭부터 우선 살펴보자. 대체로 家庭이란 獨立個體는 住宅이다. 住宅은 生活單位의 必須要件이면서도 '71年 現在 住宅不足率은 22.2%로 67年의 不足率 20.4% 보다 오히려 惡化되었다.

71年末 現在 全國의 家口數는 모두 557萬4,000戶인데 住宅數는 433萬8,000戶로 주택부족수가 123萬6,000戶로 부족率은 22.2%에 이른다. 特別 人口集中率이 가장 높은 全국의 32개 都市 住宅不足率은 40.1%에 이르고 있는데 주요도시별 住宅不足率을 보면 서울이 43.1%, 부산 39.4%, 대구 48.5%, 대전 37.9%, 광주 40%, 인천 39.9%등으로 나타나있다. 都市의 住宅不足率이 이와같이 높은 반면에 郡面(농어촌)의 住宅不足率은 9.4%로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부족을 計算은 住宅의 質을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도시, 농촌의 不良住宅을 고려에 넣는다면 훨씬 높아 지리라 推測된다. 即 67년부터 71년까지의 住宅數는 409萬7000戶에서 442萬8,000戶로 약 33萬戶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나 家口數는 514萬5,000戶에서 569萬戶로 54萬5,000戶로 늘어 家口數 증가율이 住宅數 증가율을 앞선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月所得 계층별 住宅現況을 풀

이해 보면 71年末 現在로 調査된 우리나라 月所得 2만원이하 家口는 全國 569만 家口중 6.2%에 해당하는 35萬2,700家口인 데 이 중 93.1%인 32萬8,000家口가 無住宅 家口로 나타났다. 그리고 月所得 2만원이상 2만8천원이하인 家口는 전체의 29.8%인 144萬1,000家口인데 이 중 43.7%인 56萬8,000家口가 無住宅家口이다. 다시말하면 月所得 2만8천원 이하인 56萬8,000의 無住宅家口의 31%인 약 18萬 家口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無住宅家口數가 절반인 약 90만 家口에 이르러 全國 住宅家口의 71%가 月所得 2만8천원 이하인 영세소득 가구라는 사실에서 우리나라 住宅不足 問題가 심각한 社會 問題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建設部가 研究한 바에 따르면 月所得 2만원 이하의 家口가 그 能力에 맞춰 住居費로 支出할 수 있는 月額數는 月所得의 14.5%인 4,100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現實에 비추어 보아 月4,100원 이하의 住居費 支出로 집을 가지기는 不可하고 그러한 住居費 支出로는 전세 집이나 셋방을 얻기도 힘들다.

이러한 住宅不足率속에서 설혹 住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가구당 평균 인원을 5~7명으로 보아 住宅이 차지하고 있는 面積은 7.5坪이며 한사람이 평균적으로 차지하여 쓸 수 있는 坪數는 1.3坪이라는 극히 狹小한 곳에서 生活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것도 大都市의 경우는 더욱甚하여 1家口當 面積은 평균 1家口의 人口를 5.5인으로 推算하여 한사람이 약 1.2坪에 살고 있는 현실이다.

讀書할 時間을 가장 많이 가져야 할 家庭이 서재나 공부방을 따로 둘 수 없게 되어 집안에서 나와야 工夫를 할수 있다고 하는 學生들이 많아지게 된 要因이 여기에 있다.

사실상 讀書를 할 수 있는 人口는 주로 都市에 集中되어 있음에도 讀書를 할 住宅施設은 오히려 농어촌보다 훨씬 부족한 狀態이고 보니 자연 이들에게 讀書의 場을 마련해 주어야할 곳이 公共施設인 圖書館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은 學校 圖書館을 利用하여야 할 일반 市民들은 學生들의 先點으로 圖書館을 活用할 수 없는 지경에 處하고 말게되었다.

이에 대한 解決點은 學校圖書館의 擴充은 물론 公共圖書館 施設의 증설이 讀書의 場을 마련한다는 點에서도 절실히 要望되는 바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과 다른나라들의 公共도서관 사정과는 어떤가를 다음 圖表로서 살펴보자.

뒷면의 現況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公共도서관이 所藏하고 있는 藏書數는 1,189,955卷으로 國民 1人當 평균 0.018이라는 가장 적은 數의 圖書를 갖

世界公共圖書館 現況

국명	인구	공공도서관 수	장서 수	1인당 평균 권	1인당 평균 권	연도
한국	31,469,132	65	1,189,955	542	0.018	'72
일본	92,280,000	757	22,392,000	130	0.227	'65
필리핀	31,270,000	363	773,000	86	0.024	"
자유중국	12,293,000	17	951,000	723	0.077	"
태국	29,700,000	308	372,000	96	0.012	"
인도	471,624,000	1,212	9,746,000	389	0.020	"
미국	192,119,000	7,258	173,660,000	26	0.803	"
브라질	78,809,000	1,466	8,195,000	54	0.103	"
칠레	8,492,000	240	1,805,000	35	0.212	"
멕시코	39,644,000	450	1,791,000	88	0.045	"
영국	54,066,000	565	88,200,000	96	1.631	"
프랑스	8,451,000	222	3,043,000	38	0.360	"
스웨덴	76,610,000	2,218	18,561,000	4	2.422	"
노르웨이	3,695,000	1,310	7,249,000	3	2.821	"
덴마크	4,720,000	1,447	13,845,000	3	2.933	"
이스라엘	2,476,000	601	4,500,000	4	1.817	"
호주	11,360,000	553	10,470,000	20	0.921	"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적은 數의 圖書마저도 그 利用率에 견주어 主要先進國의 藏書 회전율과 比較할 때 매우 낮은 數値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各國이 所藏하고 있는 藏書量과 利用率을 잠시 살펴보자

세계각국의 도서대출통계(공공도서관)

국명	인구	대출책수	1인당 대출수	등록이용자수	총인구 등록이용자비율
남아연방	1,315,000	14,783,000	11.24	537,000	40.84
영국	51,680,000	397,000,000	7.68	14,470,000	28.00
덴마크	4,450,000	21,209,000	4.77	792,000	17.80
스웨덴	7,170,000	29,188,000	4.07	1,907,000	26.60
필리핀	2,095,000	7,745,000	3.70	351,000	16.75
필란드	4,120,000	14,427,000	3.50	696,000	16.89
미국	168,170,000	490,000,000	2.92	3,050,000	18.14
유고슬라비아	7,290,000	12,509,000	1.1	1,068,000	6.18
뉴질랜드	217,000	15,162,000	4.92	492,000	22.63
서독	49,010,000	312,000,000	1.3	1,300,000	26.53
불란서	42,840,000	3,793,000	2.09	209,000	0.49
일본	93,400,000	8,878,000	0.0916	658,000	0.75
한국	31,469,132	2,239,814	0.07	5,434,792	0.17

이상의 表는 한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1961年 1~2月號에 게재된 公共圖書館 통계란에서 參照한 것이다.

藏書數의 빈약은 바로 읽을 거리가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나마 적은 藏書量에 對한 회전율이 낮은것은 바로 國民이 讀書에 對한 無關心 내지 讀書意慾의 缺乏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새로운 圖書의 購入은 자연 讀書意慾을 불러 일으킬과 同時에 藏書의 회전율은 높아지게 되나 藏書量의

微微한 증가는 오히려 讀書意慾을 저하시키게 되고 대출 회전율을 점차로 隔減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讀書라고 하는것이 多角的인 複合要因이 心理的으로나 物理的으로 갖추어질 때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讀書라고 하는 그 內容面에서도 매우 多元的인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는바이다. 여하튼 讀書에 있어서 3대要素라 할 수 있는 讀書意慾, 圖書, 讀書의 場이 가장 重要視되고 있다. 이 중 場所와 讀者에 對한 것은 前述한 몇가지 사항으로 끝이기로 하고 다음은 圖書에 對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4. 讀書와 圖書

대체로 全世界에서 發刊되고 있는 圖書의 年間總發行部數는 약 50억이 넘는 것으로 推算되고 있다. 이중 70%가 9개 主要國에서 發行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先進國이라 하는 나라들의 年間 책의 供給量은 國民 1인당 평균 2,200페이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위 개발도상국은 國民 1인당 평균 32페이지 가량으로 보고 있다. 韓國은 年間總發行 페이지 數를 20억으로 보고 人口 3천1백만명으로 보면 국민 1인당 약 48페이지 程度이다.

이렇듯 圖書의 出版量으로도 充分히 國力을 測定할 수 있는 일면을 보게 된다. 흔히 우리가 자주 引用 비유하고 있는 日本의 경우를 들어 보면 국민 1인당 單行本 4권, 月刊紙 6부, 週刊紙 8부를 發行하고 있다는 數値가 70年度 統計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本稿에서 論하고 있는 圖書 1권의 평균 페이지 數는 318페이지로 看做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美國의 경우 年間 1인 평균 20권으로 우리 보다 약 100배이며 英國은 年間 1인당 평균 6권으로 우리의 30배이다. 西獨은 年間 10권으로 우리의 50배나 된다. 이렇게 發行되고 있는 圖書의 購入狀況을 世界 主要國들의 國民 1인당 年間 圖書 購入費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對照하여 보면 한국은 약 100원인데 반하여 美國은 4,320원으로 우리의 43배, 英國은 2,000원으로 20배, 日本은 1,730원으로 17배가 된다.

이렇듯 主要先進國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國民들의 圖書購入費가 낮은것은 구매자의 貨金수준이 낮은것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即 근로자의 월평균 貨金이 고작 6,920원으로 이중 食品費, 住居費, 光熱費, 被服費가 追加되고 이를 除外한 年間 雜費를 2,232원으로 잡고 보면 이가운데 文化費가 한달에 겨우 186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돈을 일체 다른 文化費에 쓰지

않고 5개월을 꼬박 똥야야 책 한권을 겨우 살까 말까 하다. 이러한 計算은 國內出版物의 값이 卷當 317페이지로 평균하여 初版이 평균 977원꼴이고 重版인 경우 723원이 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家計所得이 낮고 책값이 購買力을 앞질러 가고 있는 現實에서 國民이 讀書를 外面하고 讀書人口가 줄어 드는 실정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책값의 오름세는 年年이 되풀이 되고 레저 붐 때문에 文化소비, 사치성낭비까지 곁들여 視聽覺인 TV나 라디오 영화관등에서 소인하는 時間을 除하고 나니 책은 자연 가장 魅力없는 物件이 되고 있고 오히려 책을 읽는다는 것이 성가신 일이 되어 버린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아래서 우리나라 國民들은 얼마만큼의 讀書를 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른 나라들과 比較하여 어느 程度의 수준인가를 살펴보자.

1970年版 Britanica Books項에 보면 英國人의 讀書人口는 50%로 보고 이외의 스칸디나비아, 서독, 캐나다, 오스트리아는 대체 30~40%로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전적으로 信賴하기는 어려운 統計이나 筆者가 調査한바로는 日本이 30~44%이고 불란서는 28%, 우리나라는 7~10%로 보고 있다.

正確한 資料를 얻을 수 없어 비록 信賴性이 다소 缺如된 계수이지만 이 以上の 明確한 데이터가 없어 대체적인 平均 讀書量을 여기에 인용해 보면 歐美諸國이 약 1,000~1,200페이지이고 日本이 年間 3,000페이지이며 영국이 1일 평균 1인당 80~100페이지 읽는다고 한다.

일본과 중공을 除外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平均 독서량은 30페이지 가량이며 우리나라는 40~60페이지로 보고 있어 아시아 저개발국 보다는 다소 나은 편으로 推算되고 있다.

讀書與件에 또 하나의 重要 要因이 되고 있는것이 出版事情이다. 卽 좋은 책을 올게 펴내어 萬人이 즐겨 읽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 出版企業의 使命이라 한다면 良書의 出版이 至極히 어려운 우리의 出版現況은 어떠한가 잠시 살펴보자.

대체로 우리나라의 出版社는 現在 약 1,000여개사인데 이중 2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出版社는 22個社에 不遇하고 10年 以上の 命脈을 이어온 出版社가 190個社이며 해마다 160개사 程度의 出版社가 새로이 登錄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有明無實한 出版社는 160個社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傳統있는 우수한 몇개 出版社를 除外한 大部分의 營生 출판업자들은 편집기획에 있어 長期的인 眼目을 가진 良書의 出版보다는 그해 그해의 收支 타산에 급급한 주먹구구식의 계산으로 學習用 參考書나

소위 시기물, 卽 外國에서 인기를 얻은 베스트 셀러등을 올바른 筆陣을 얻지도 못하고 無節制하게 퍼내는것이 고작이다. 이러한 韓國의 出版業의 營生성을 카바하기 위하여서는 당국의 行政的인 지원과 經濟的인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은 勿論이나, 보다 高等敎育 기관인 大學出版部에서 營利를 떠난 純粹한 良書出版에 힘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大學은 대체로 一定數의 讀者를 保有하고 있으며 재단의 뒷받침만 있다면 筆陣을 敎授들 중에서 比較的 적절히 選擇할 수 있는 好條件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現在 100餘個의 大學이 우리나라에 있으나 實際 大學에 出版部를 두고 있는 곳은 불과 10여개처 밖에 限된다. 當국은 이들 大學出版部에 출판보조금같은 것을 주어 수준높은 敎養書들을 大學들이 義務的으로 發刊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하튼 圖書가 국가개발을 선도하고 있음이 자명하다함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바 이에대한 充分한 개발과 지속적인 發展의 支援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特히 경제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出版의 性向이 文學이나 社會科學系의 出版에 치우치고 工學 醫學, 農學, 水産等 産業技術開發에 必要한 專門技術書는 전체 出版物의 約 8%에 불과하다. 이러한 出版傾向을 國家는 國家의 發展目的에 必要한 分野의 學術書籍發行으로 유도하여 경제개발시책에 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先進諸國인 美國, 소련, 불란서, 독일,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그들의 出版率이 國民總生産高와 견주어 볼 때 최소 0.5% 최대 1%까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0.2%에 불과하다. 여기 에스카르피氏의 力著인 出版革命이라는 著書 가운데 나타난 西歐의 부장국들에 대한 圖書의 種當 平均 인쇄 부수는 영국이 15,200部, 미국이 13,900部, 불란서가 9,700部, 서독이 7,700部이며 이밖의 몇몇 나라들은 3,000~6,000권으로 그치고 있는 데 대체로 種當 平均 발행부수가 만권 이상이거나 만권을 肉迫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平均 種當 發行部數는 約 3,000部 內外를 오르내리고 있는 實情이며 圖書의 發行種類數만도 先進諸國의 경우 인구 백만인당에 견주어 아무리 낮게 잡아도 年平均 140種인데 한국은 100種 미만이다. 이러한 제반 추세를 견주어 볼 때 우리 나라의 出版界는 開發도상국의 道程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중에서도 저수준급에 놓여 있는 것이다.

圖書의 發行部數가 책값의 基準을 좌우하는데 절대적인 것이 라면 販買過程이 정상적 체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걸 또한 크게 책값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하면 책은 出版에서 讀者에게 책이 販賣되기

까지, 그리고 책값이 다시 출판사에 돌아 오기까지의 대금회전율은 매우 낮다. 대체로 책이 出版되어 讀者에게 供給이 되기까지는 9個月이 걸리고 發行된 部數가 다 팔리기까지는 2년내지 3년이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週期的으로 오름勢를 보이고 있는 用紙難은 今年와 같은 경우 現金을 주고도 신청액의 반정도 밖에 購入을 못하는 수난을 당하게 됨에 圖書出版이 安定勢를 견기에는 꽤 어려운 實情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우리나라 出版業을 悲觀的으로만 내다 볼 것은 아니다. 앞서도 말한바 있지만 우리 나라는 世界 어느 나라 못지 않게 教育熱이 높아 潛在 讀書人口는 계속 증가 될것이고 圖書의 海外輸出도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는것을 볼 때 出版事情도 당국의 지원과 讀書人口의 開發로 不遠한 장래에 活氣에 차리라 믿는다.

大韓出版文化協會의 集計에 따르면 1973年 1월부터 7月末까지 7個月동안 發行된 圖書의 種數는 4千1百31種, 작년의 같은 期間보다 60%를 상회하는 대기록을 세웠으며 分野에 따라 지난해 同期의 出版物數 보다 3.5배나 증가하는 驚異的인 現狀까지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동안 나온 약 2千6百종의 出版種數 역시 71年 한해동안의 2千9百餘種에 接近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항상 저조상태를免하지 못하던 總類, 純粹科學, 技術科學, 藝術, 歷史類의 圖書가 작년 同期보다 2배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圖書生産性格이 극히 多樣 分化되었으며 外書에의 依存度를 벗어나기 始作하는 實讀者층의 要求에 銳敏한 反應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昨年의 59種에서 73年 상반기 221種으로 3.5배나 늘어난 歷史物의 경우 우리의 讀書人口가 歷史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이 같은 今年度 圖書生産의 기록은 政府당국 및 대한출판문화협회의 納本독촉 164개의 新規出版社의 活動에 힘을 입기도 했지만 出版業의 安定과 成長, 企業으로서 成立可能性으로부터 讀書人口의 증가와 讀書運動의 성과에 이르기까지 多角的인 要素에 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既存의 讀書를 하고 있는 독자층도 좀더 필요에 따라 많은 量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速讀力을 길러주는 제공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지역의 特定學校의 경우이지만 대구지방의 어떤 여자고등학교 2학년생의 1분간 평균 速讀力은 148單語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1분간에 229單語, 미국은 237單語라고 하는 데 우리도 스피드한 時代에 Speed Reading을 하여 讀書의 目的을 적은 時間에 많은 책을 읽도록 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昨年에 來韓하였던 美國 出版關係 專問家인 시웨이 크氏は 우리나라 GNP 成長率은 67年~71年間에 82.8%가 증가된 데 반하여 圖書의 發行은 오히려 14%가 減少되었다고 하였다.

여하튼 이러한 韓國出版係의 活路를 開拓하여 나가는 지름길은 國民 1人당의 讀書 目標量을 높이는 運動을 전개하고 暇가본의 圖書를 生産供給하고 인쇄 및 용지난을 정책적으로 해소하여 나가는 당국의 도움이 實질히 要望된다고 하겠다.

특히 國內 公共圖書館을 비롯한 많은 圖書館들이 서로 發刊되는 出版物은 물론 既發行된 출판물이라 하더라도 可能한한 購入量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로 1972年度 圖書館예산의 總額은 28億3千3百萬圓으로 이중 國民에게 讀書活動의 場이 되고 있는 公共圖書館의 예산은 3億1千3百萬圓으로 전체 圖書館 예산의 10%미만이며 이中 60%가 인건비이고 圖書購入費는 16%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도서관들의 국내도서 구입비는 前예산의 21%에 불과하고 절반에 가까운 13億圓이 (48%) 외국정간물이나 圖書購入費에 使用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가운데 公共圖書館이 國民 1人당 國內 圖書購入 예산액으로 使用한 것을 본다면 5월64전 꼴이 되고 있다. 따라서 72年度에 國民 1人당 公共圖書館 育成에 쓴 비용은 9원97전꼴이 되고 있는데 각국의 공공도서관 경장비 징수실태를 보면 주민 1인당 예산액은 미국이 3.5弗, 캐나다 2弗, 독일이 2.17 마르크, 일본이 2弗, 한국이 10원 정도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處하고 있는 讀書環境여건을 概略적으로 살펴 보았다.

### 5. 讀書人口의 增加對策

그러면 이러한 現況에서 어떻게 讀書人口를 증가시키려나 해야 할 것인가를 좀더 검토하여 보자.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항목별로 들어보면 첫째 所得의 向上, 둘째 책값의 切下, 셋째 圖書館 施設擴充, 넷째 制度的인 改善, 다섯째 讀書에 대한 興味誘發, 여섯째 實生活에서의 讀書의 有益性 啓蒙등이다. 첫째 所得의 向上은 現代社會가 指向하고 있는 福祉國家는 전체 國民所得의 向上과 富의 均配로 所得의 증가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生活이란 바탕은 努力하고 活動한 댓가로 얻어진 報酬로 安定된 生計유지가 되고난 후에 비로서 文化市民으로서 教養을 높이고 社會教育的 側面에서 보다 나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政府 당국에서도 이미 1,2차 5개년 經濟개발계획을 成功的으로 마치고 3차 5개년 계획 2次年度에 접어들면서 더욱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展望은 밝아 우리 국민의 소득증가는 온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대로 계속된다면 80年代에 가서는 우리도 先進國 못지 않는 국민으로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 국민의 所得증가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니 讀書環境의 根源的인 여건은 앞으로 자연 해소될 것이다. 이의 반증으로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소비생활지출 性向이 食生活費 위주이던것이 그 패턴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集計한 72年度 GNP 推計에 따르면 민간 소비지출중의 生活費 構成比는 지난 70년에 11.2%, 71년 12.3%, 72년에 12.9%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한편 生活費중 食生活費 構成比(엔겔계수)는 70년의 53.9%, 71년의 52.6%, 72년의 52.1%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住居費와 雜費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책값의 切下문제이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책값은 國際市場에서의 單價와 견주어 볼 때 그렇게 비싼편은 못되나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發行되고 있는 圖書 대부분이 國內에서 販賣되고 있고 海外輸出로서는 微微한 程度이고 보면 圖書의 가격을 국제가격과 견줄것이 아니라 國民所得에 견주어야 할 것이다.

한동안 全集 붐이 출판계에 形成되어 高價의 月賦販賣物이 出版界를 풍미하여, 읽기위한 圖書의 出版이 아니라 出版社들은 오직 商品으로서의 營業打算에만 치우쳐 高價의 정가를 매겼고 購買者들은 實際의 讀書를 하고자 하는 意圖와는 달리 裝飾品으로서 책을 사들인 傾向으로 빠져들어난 사실들은 大多數의 一般讀者들이 책과 接近하기 어려운 要因을 낳게 만들었다. 이러한 출판경향은 全國民들을 讀書하는 國民으로 끌어 들이는 運動에 크나큰 장애가 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이에대한 시정책으로 근간에는 많은 出版社들이 염가본인 文庫版으로 편집기획을 하게된 것은 반가운 사실이나 그 기획된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것들이어서 讀者로 하여금 選擇의 混亂 내지는 賤路의 길이 좁아져 자칫하면 出血競爭으로 번지게 되어 讀者들은 물론 出版文化라는 범주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이제부터라도 各出版社는 독서경향, 讀者의 分野別 讀書層등을 고려하여 각기 社의 傳統과 個性을 살려 나가야만 持續的인 販賣高를 堅持하여 出版이 투기라는 企業의 印像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圖書館의 施設擴充이다.

오늘날 圖書館의 施設이 날로 확충되어가고 있는 것은 人口의 증가에 따른 조치보다는 점점 늘어나는 文

獻의 發行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圖書館의 數는 幾何學的으로 늘어나는 文獻의 出版量에 比하여 踏步狀態에 있는 實情에 비추어 既存圖書館의 施設擴充은 물론 새로운 圖書館의 施設擴充은 새로운 圖書館이 地域社會의 文化전초지로 存在하게 되려면 이제까지의 圖書館政策을 탈바꿈하여 좀더 實效性있는 年次的인 計劃을 세워 실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公共圖書館의 育成策으로 모든 制度面에서 새로운 轉機를 마련할 수 있도록 運營에 뒷받침이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우리나라 圖書館 實情으로는 침체一路에 있는 讀書運動을 불러 일으킬 力을 기대할 수 없을뿐 아니라 현재 讀書意慾이 있어 來館하는 많은 讀者層이 점점 경원시 하고 나아가서는 讀書率의 저조를 더욱 招來하지 않을까 念慮된다. 이러한 狀態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論說制度的인 改善方案을 最大限으로 조속히 適用하여야 할 줄로 안다.

넷째 制度的인 改善

오늘날 讀書運動을 즐기치게 벌리고 있는 나라는 한 두 나라가 아닌것으로 안다. 이들 여러 나라들의 讀書運動의 展開는 우리의 여전보다는 매우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오늘날 경제발전이 못지 않게 國民精神啓發에 힘써 균형있는 國家發展을 위하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文化民族임을 自負하나 보다 肯定的으로 文化民族의 位置를 선양하기 위해서는 讀書를 많이하는 國民이 되어야 하겠다. 讀書層이 全體國民의 7~8%라는 저급한 讀書率을 높이기 위하여는 國民 大多數가 潜在的인 독서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의 讀書人口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반 制度的인 改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于先, 既存의 各級 圖書館들이 奉仕對象地域住民들에게 義務的으로 圖書의 순환대출제도를 마련하고 希望者에 따라서는 讀書登錄 會員制를 두도록 한다.

公共圖書館의 育成策으로 圖書館稅를 賦課하여 圖書館設立 및 運營제원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讀書를 習慣化되도록 國民學校에서부터 高等學校에 이르기까지 國語敎科過程을 개편하여 讀書를 할 수 있도록 誘引하여 讀書가 隱然中學校生活속에서 習慣化하여 卒業을 한뒤에 社會生活를 하면서도 계속 讀書를 즐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셋째 出版支援政策을 마련하여 良書出版의 보조금 支援制度를 두도록 하여야 옳을 것이다.

넷째 各級 圖書館의 순환대출제도를 果敢히 施行하기 위하여서는 분실도서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圖書館을 運用하고 있는 많은 實務者들은 이 忘失

내지 損失圖書에 대한 책임감에서 가독이나 빈약한 장서를 가지고 적극적인 讀書誘致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讀書人口 誘致를 위한 P.R을 各種 社會團體 各級機關 및 매스콤을 통하여 實効있게 行하도록 持續的인 期間을 設定하고 예산의 浬받침을 하도록 制度化한다. 따라서 P.R의 內容은 讀書에 대한 興味誘發을 實際적으로 刺戟시키도록 할 것이며 실제 生活에서 讀書의 有益性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실감있게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6. 結 語

以上으로 讀書運動에 對한 現況과 診斷을 하고 그 改善策을 提示하여 보았으나 讀書運動이란 課題는 全國民을 對象으로 한 生涯教育의 일환이라고 보아 이 運動의 成果는 持續的으로 관계 當局과 圖書館人은 물론 一般國民의 不斷한 協力이 없이는 그 成果를 거두기엔 至難한 事業인 것이다. 한때 이러한 讀書運動의

(11面에서 繼續)

運動이고 無限한 可能性을 가지는 것”, 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無限한 可能性」이란 그 時代狀況에 맞는 合理的인 制度와 効率的인 推進方法이 수반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次元에서 볼때 마을文庫는 궁극적으로 公共圖書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調整되고 育成되어야만 한다.

文庫設置가 일단락된 現狀에서 위와 같은 育成策에 의거 어느 정도 土臺가 잡히고, 1市·郡에 1個 公共圖書館이 設置되면 各 마을文庫는 그 지역사회 公共圖書館에 귀속되어 도서관이 管掌, 指導하고 公共圖書館의 最일선 組織으로 活用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므로서만이 公共圖書館의 機能이 地域社會 전체에 미치

必要性을 내세워 여러 讀書運動團體가 兩後所符격으로 생기어 讀書運動本然의 目的보다는 讀書라는 美名下에 商魂을 휘둘렀던 現實들을 감안할 때 좀더 凡國民的인 運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強力한 機構가 誕生하였으면 한다.

<參考文獻>

도서관 4293. 9月號  
 人口센서스 보고서 1970  
 東亞年鑑 1973  
 讀書新聞 1972. 9. 10月號  
 東亞日報 1973. 8. 3日字.  
 Britanica Encyclopidia 1970  
 도협월보 1973. 5月號  
 出版文化 1971 “  
 出版年鑑 1972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1961 1~2月.  
 한국도서관통계연보 1972  
 출판혁명 시애틀크 펄  
 세계통계연감 1970

는 결과가 되리라 믿는다.

아직은 郡單位 公共圖書館이 너무나 不足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自體 圖書館 유지에도 힘겨워 管內에 散在된 文庫에 대한 支援이 어려운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全南 康津郡立圖書館 등 몇곳의 앞선 公共圖書館에서는 일찍부터 마을文庫를 지역사회의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活用·育成하고 있으며, 서울市立鍾路圖書館·京畿道立圖書館 등 몇몇 都市所在 圖書館에서는 「복·모빌」을 利用하여 인근 文庫들을 支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特有의 圖書館網을 形成하는 훌륭한 試金石이 되리라 믿는다.

마을文庫는 그 지역사회의 公共圖書館과 긴밀한 유대를 맺음으로서만이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있는 바 일선 公共圖書館의 많은 關心과 協助가 기대되는 바이다.

始興郡立圖書館 安養市立으로 昇格

지난 1963年 7月에 設立 運營되어 오던 始興郡立圖書館이 市立圖書館으로 昇格되었다고 한다. 即 1973年 7月1日 政府의 行政區域 改稱에 따라 安養邑이 市로 昇格됨으로써 同 邑에 所在한 始興郡立圖書館이 安養市立圖書館으로 昇格 그 名稱이 變更되었다고 한다.

大邱市立圖書館 移轉計劃 確定

傳聞된 바에 의하던 大邱市立圖書館이 擴張 移轉될 豫定이라고 한다. 即 大邱市에서는 今般 大邱地方法院이 新築移轉(10月頃)함에 따라 同 法院廳舍를 市가 引受키로 하고, 8,000萬圓의 豫算을 드려 同 建物を 改築하고 또한 環境을 造成하여 大邱市立圖書館으로 活用하는 計劃을 確定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來年初에는 새로운 곳으로 移轉하여 開館케 될 것이라고 한다.

正司書資格取得을 위한 圖書館學 講習實施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正司書資格取得을 위한 圖書館學講習

을 實施한다고 한다. 이 講習會는 圖書館法 第17條5號 및 同 法施行令 第5條에 의하여 各級 圖書館의 準司書資格證 所持者를 對象으로 實施하는 것인데 講習期間은 1973年 9月17日부터 10月 17日까지(25日間)며 講習人員은 50名으로서 先着願으로 接受한다고 한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國立中央圖書館 指導協力課에 問議를 要望하고 있다.

한국사회교육협회 임시총회

사단법인 한국사회교육협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 협회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정관을 개정하고 단체 명칭을 변경하였다. 총회의 회원 자격은 문교부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사회교육유공자, 여성교육유공자, 청소년교육유공자 상 수상자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외부인사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명칭은 한국사회교육협회(전 한국사회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 회장은 嚴大燮(마을문교본부 총장)님이 유임되었다고 한다.